



스타일 알जू?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산별교섭 법제화 - 산별 임금체계 노사공동위 쟁취!
인지컨트롤스 안산지회
최저임금 꿈수 저지를 위한 경기지부 결의대회

10기 첫 집회, 인지에서

21일(목) 저녁 5시 반, 지부 조합원들이 인지 앞에 모였다. 지부 10기 임원을 선출한 후 처음 연 집회다. 본격적인 2018년 임단투를 시작하기 앞서, 80일 가까운 인지 조합원의 '최저임금 꿈수 저지 투쟁' 승리를 위한 지부의 결의를 보여주기로 했다. 애초 참가예상은 250여 명이었지만 안양, 안성, 평택, 화성에서 온 간부들과 퇴근하고 인지로 발걸음한 안산지역 조합원까지 400여 명이 모였다.

정구양 지부장은 44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인지가 최저임금 많이 인상됐다고 꿈수 부리는 걸 규탄하며 "제대로 안 하면 7월에 파업하고 또 온다"고 선포했다. 김영신 사무국장은 정구양 지부장이 집단교섭에서 회사를 향해 "스타일 알जू?"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경기지부 스타일로 제대로 몰빵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안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금속노조 가입해서 함께 권리 찾자"고 구호를 외쳤다.

함께 막고 함께 살자

이재송 인지 지회장은 "기분이 정말 좋다. 조합원이 있어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며 거침없이 투쟁하는 인지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인지 경주지회 최용복 지회장도 함께해 "최임꿈수 함께 막고 함께 살자"고 힘차게 외쳤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양성습 의장도 "최임산입범위 문제 대다수 노동자의 문제다. 인지 투쟁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짧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인지에서 시화이마트까지 공단을 행진하며 우리 이야기를 알렸다. 행진 중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인지 간부들이 맡았다. 10년 내공, 80일 투쟁기운이 그대로 행진하는 조합원과 시민에게 전해졌다. 정성스런 멘트, 울분에 찬 함성, 센스넘치는 선동에 행진 내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인지 간부들 진짜 잘한다. 지부 간부인 줄 알았다. 놀랐다"고들 했다.

2018 경기스타일 가즈아~

인지 조합원들이 80일 간 들고 투쟁했던 낡은 현수막을 지부 조합원들이 받아 들고 행진했다. 행진 중에도 안산의 조합원들은 퇴근하고 속속 합류했다. 안양, 안성, 평택, 화성에서 온 간부들은 집회복장 풀 착용, 안산의 퇴근 조합원들은 퇴근길 복장 그대로 함께했다. "인지에 힘 신자"는 의지를 각자의 위치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다. 길 가는 시민, 대학생들도 폰을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시화이마트까지 행진을 마치고 마무리집회를 했다. 조합원 70명이 함께 나온 대창지회 이명석 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재작년에 노조 안 만들었으면 우리 회사도 벌써 상여금 월할하고 흡수했을 겁니다. 노조 만들어서 막은 겁니다. 법 좋아하는 회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는 왜 싫어할까요. 우리는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해 힘차게 투쟁해서 자식들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맙시다"라고 해 큰 환호가 이어졌다. 힘 넘치는 노래공연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의 격려까지 듣고, 힘차게 파업가를 부르며 첫 집회를 마쳤다. 집회가 끝난 이마트 인근은 이날 기분만큼 시원한 저녁 공기 맞으며 저녁 먹고 한 잔 하는 조합원들로 북적북적했다.

경기지부는 몰빵스타일로 지난 5년 사이 14개 신생사업장이 생겼고 2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기존 사업장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왔다. 올해도 그대로 간다.

올 해도 신나게 잘하자

27일 금속노조 조정 돌입

21일(목) 우창정기에서 열린 10차 집단교섭에서 회사는 2번째 제시안을 냈다. 노조·지부 공동요구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 임금은 대원만 3만원을 냈다. 지부는 “추가 안 없다면 논의 어렵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결렬됐고 27일 조정 들어간다. 지부도 동시에 한다. 7월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3일 6시간 파업과 상경투쟁 준비 중이다. 지부도 21일 인지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의 포문을 연다. 휴가 전 타결을 위해 사용자들도 노력해 달라”고 했다.

지켜보고 있다

집단교섭에서 지부장은 “계양 안산 전장라인 천안으로 일방 이전 당장 중단하라. 현대케피코 2017년 합의사항 이행 6월까지 확실히 하라”며 사업장 현안도 하나하나 주목하고 있음을 알렸다. 회사는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삼화와 썬텍은 사용자측을 통해 집단교섭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각 지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했다. 지부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삼화 사측은 지회 보충교섭은 진행 중이나 집단교섭에는 1번 왔다. 썬텍은 회사가 ‘단체협약무효소송’을 시작해 지회는 11일차 출근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우리지회도 연대했다.(▲위 사진) 주연테크지회는 안양공장 일산 이전이 확정돼 조합원 간담회로 의견을 모으고 고용안정교섭을 하며 대응하고 있다.

잘하는 선배님



7월 본격 투쟁을 앞둔 현장도 워밍업 중이다. 30년 에스제이엠지회의 공동체 놀이가 단연 눈길을 끈다. 쉬는 시간에 부서별로 모여 탁구공 많이 넣기, 미니컬링 등 함께 재밌게 놀면서 투쟁을 준비한다. 일상의 작은 단결, 웃음, 동료애가 모여 집중할 때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것. 노련한 선배님들의 노하우는 신생 사업장과 후배사업장들이 주목하고 배워야 할 일 1순위다.

멋쟁이 후배님

작년 현대모비스화성지회를 시작으로 전국에 현대그룹 부품협력사 노조 설립이 잇달았다. 지난 주(20일) 울산에 현대모비스물류지회가 생겨 전국에 똑같은 조건의 지회가 9개다. 경기에는 13년 만든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부터 현대모비스화성, 현대위아안산, 현대모비스평택까지 4개 지회가 있다. 신생 모비스평택지회는 26일 회사가 첫 제시안을 낸다. 모두 27일 노조 일정에 맞춰 조정에 돌입하고 함께 투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섭을 담당할 이기만 수석은 “부품사지회의 공동투쟁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들이 벌이는 완전 새로운 투쟁이 될 것. 지부 전체 사업장이 주목하고, 지원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온다 새식구

새식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경기지회는 4.17 직고용 합의 후 1년 휴가 다 쓴 간부들의 헌신으로 100명 남짓하던 조합원이 300명을 넘겼다. 22일(금)에는 새로 가입한 동수원분회 설립총회도 열었다.(▼ 아래 왼쪽 사진) 지회설립 5주년이 되는 7월 14일까지 세부합의를 위한 교섭에 속도를 낸다. 지난 6.13 지방선거 날, 안산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도 설립총회를 열고 경기금속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를 만들었다. 200여 명 조합원이 가입했다. (▼ 아래 오른쪽, 아래쪽 사진) 분회는 27일(수) 상견례에서 기초협약 합의부터 요구하며 첫 발을 뗄 계획이다.



2018년 본격 임단투를 앞둔 경기지부 각 사업장은 현장의 자력을 바탕으로 지키고, 즐기고, 누리면서 역동적인 투쟁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조직확대와 신생노조 지키기도 일상이 됐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단결불패’ 정신으로 지켜온 자력현장, ‘권리함께’ 마음으로 키워온 뒷배지부! 우리 스타일대로, 모든 것을 함께 돌파해 갈 것이다.

‘비바.자력현장’은 이번 주 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자력현장! 뒷배지부!